

언어교제론리에 대한 일반적리해

리 용 석

최근시기 논리학이 과학연구와 일상생활의 여러 분야들에 널리 리용되면서 새로운 응용논리학리론들이 많이 나오고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언어교제론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말을 해도 사리정연하게 하고 글을 써도 논리정연하게 쓰며 무슨 일을 조직전개해도 과학적리치에 맞게 짜고들어 빈틈없이 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4권 391페이지)

사람들이 말과 글로써 의사를 서로 교환하는것을 언어교제라고 한다. 언어교제과정에 상대방이 자기의 의사를 정확히 리해하고 납득하게 하려면 말을 해도 사리정연하게 하고 글을 써도 논리정연하게 써야 한다.

언어교제론리는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고 글을 쓰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론법들을 연구하는 응용논리의 한 분야이다.

언어교제론리에 대한 일반적리해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언어교제론리의 사명에 대하여 옳바로 인식하는것이다.

언어교제론리는 말과 글의 논리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한다.

말과 글을 연구하는 리론과 과학에는 언어교제론리뿐아니라 어휘론, 문장론, 문체론, 어용론, 언어심리학, 언어료리학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 모든 리론들과 과학들은 다 말과 글을 대상으로 하며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데 이바지할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이 있다.

그러나 매 과학리론들이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데 이바지하는 측면은 서로 다르다. 어휘론, 문장론, 문체론, 어용론이 언어표현의 정확성과 생동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면 언어심리학은 언어의 습득과 사용을 심리에 맞게 하는데 이바지하며 언어료리학은 사람들이 언어폐절을 지키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이와는 달리 언어교제론리는 말과 글의 논리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전통론리도 말과 글의 논리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전통론리의 직접적목적은 사고의 논리성을 보장하는것이다. 전통론리에서는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떠난 일반적인 형식과 법칙을 연구함으로써 사람들이 타당한 논리적형식에 맞추어 사고하도록 한다.

그러나 전통론리에서는 언어교제의 구체적인 환경과 내용, 수단과 방식에 따라서 론리를 어떻게 전개하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주지 못한다. 따라서 전통론리가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글을 쓰는데 도움을 준다는것은 말과 글이 사람의 사고의 표현이기때문에 논리적인 사고능력을 높이는것을 통하여 이바지한다는것이다. 전통론리가 기초적인 지식을 주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이바지한다면 언어교제론리는 말과 글의 논리성을 보장하는데 직접적으로 이바지한다고 말할수 있다.

언어교제론리에 대한 일반적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언어교제론리의 연구대상에 대하여 옳바로 인식하는것이다.

언어교제론리에서는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고 글을 쓴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

는 기초적인 개념으로부터 시작하여 말과 글의 논리성을 보장하는데서 고려하여야 할 언어교제의 구성요소들, 말과 글에서 쓰이는 논리적인 수법들, 논리적인 글쓰기와 대화를 연구한다.

언어교제론리에서는 우선 말과 글의 논리성의 본질을 연구한다.

론리에 맞게 말을 하고 글을 쓴다는것은 내용상 앞뒤가 맞아 떨어지게, 사실과 리치에 맞게 말을 하고 글을 쓴다는것을 의미한다. 말과 글의 논리성에 관한 문제는 표현형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내용에 관한 문제이다. 즉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며 그것들이 내용적으로 서로 련결되는가, 사실과 맞는가, 일반적인 리치에 맞는가 하는 문제이다.

말과 글에서 논리성을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타당한 논리형식을 갖추었는가 못갖추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앞뒤가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언어교제론리에서는 또한 론리에 맞게 말을 하고 글을 쓰는데서 고려하여야 할 언어교제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연구한다.

여러가지 형태의 언어교제에서 자기의 주장을 설득력있게 전개하려면 상대방의 준비 정도와 지식수준을 포함하여 언어교제의 구성요소들을 잘 분석하여야 한다. 언어교제에서 고려하여야 할 언어교제의 구성요소들에는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계기와 목적, 화제와 론점, 상대자, 언어교제수단과 방식이 있다. 말과 글의 논리적의미가 언어교제의 이러한 구성요소들과의 련관속에서 확정되는것만큼 그것들을 떠나서 말과 글이 논리적인가 비논리적인가 하는것을 론의할수 없다.

실례로 《요즘은 어때요?》라는 질문에 환자는 《아픔은 좀 덜해졌어요.》라고 대답할것이다. 만약 병원이 아닌 대학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론문이 아직 잘 안된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할수도 있으며 또 일상적인 인사말로 리해하고 《바빠요.》, 《여전히 눈코뜰새 없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있어요.》와 같이 각이하게 반응하였을것이다. 여기서 질문과 대답의 논리적련계가 옳게 이루어졌는가 하는것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한 질문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언어교제론리에서는 또한 말과 글에서 쓰이는 논리적인 수법들을 연구한다.

사람들은 말과 글을 통하여 전달하려는 내용을 형상적으로 표현할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표현할수도 있다. 실례로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동생이 언니에게 《언니야, 당이란 무슨 말이나?》라고 물었을 때 고운 옷도 보내주고 태양절과 광명성절때마다 선물도 안겨주는 고마운 어머니품이 당이라고 이야기해줄수 있다.

그러나 대학강의에서는 《사상과 리념의 공통성에 의하여 결합된 사람들의 정치조직이다.》라고 설명한다. 즉 어린 동생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세계각국에 존재하는 모든 당들을 일반화하여 이야기하는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별적당 구체적으로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주지만 대학강의에서는 모든 당들의 일반적이며 본질적인 징표에 대한 리해를 준다.

말과 글에서 형상적인 표현수법은 대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동한 표상을 주는 언어 표현수법이다. 형상적인 표현수법에는 직유법, 은유법, 환유법, 의인법 등과 같은 어휘론적표현수법과 되풀이법, 벌림법, 점층법, 대구법 등과 같은 문장론적표현수법이 속한다. 이러한 형상적인 표현수법은 문체론이나 문학리론에서 연구된다.

그러나 언어교제론리에서 연구하는 논리적인 수법은 구체적이고 생동한 표상이 아니라 일반적인것, 본질적인것, 필연적인것을 원리적으로 인식시키는 수법이다. 현재까지 연구된 논리적수법들에는 정의와 론증, 문장들의 논리의미적연결법이 있다.

언어교제론리에서는 또한 논리적인 글과 대화를 기본연구대상으로 한다.

언어교제론리의 주되는 연구대상은 논리적인 글이다.

논리적인 글이란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개념과 범주, 이론적근거와 자료들을 통하여 해설론증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성적으로 인식시키는 글을 말한다.

논리적인 글에서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과학적인 원리나 원칙, 사실자료 등에 기초하여 해설론증하는 방법으로 대답을 준다. 논리적인 글에는 교과서, 학술참고서, 논문, 사론설, 강연제강, 보고서 등이 속한다.

형상적인 글은 형상적인 사고에 기초하여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예술적화폭을 통하여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그것을 감성적으로 인식시킨다. 실례로 소설, 시, 영화문학 등 문학예술작품들은 형상적인 글에 속한다. 형상적인 글은 논리적인 글과는 다른 일련의 특성을 가진다. 형상적인 글의 중요한 특성은 생동성과 회화성이다.

물론 논리적인 글이라고 하여 논리만을 전개하는것이 아니라 때로는 추상화된 리론을 구체적인 사실로써 생동하게 알려주거나 필자의 사상감정을 절절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형상적인 수법을 쓸수 있다. 형상적인 글인 경우에도 형상이 기본으로 되지만 과학기술적문제에 대한 해설이나 수자적인 통계를 보여주는것과 같이 논리적인 수법들이 전혀 배제되는것은 아니다. 글은 유형에 따라 서로 구별되면서도 어느 하나의 글속에 형상과 논리의 두 측면이 서로 결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글이 어떤 유형도 없이 아무렇게나 구성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글에는 논리와 형상의 두 측면가운데서 어느것이 더 기본적이며 주되는 자리를 차지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들이 있다. 만일 글의 유형에 따르는 이러한 본질적측면과 그 합법칙성을 무시한다면 론문을 쓴다는것이 작품처럼 되거나 작품을 쓴다는것이 딱딱한 론문처럼 되는것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수 있다.

논리적인 글은 필자의 논리적사고에 기초하고 개념과 범주, 과학적인 원리와 사실자료들을 가지고 독자에게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이성적으로 파악시키는 글이다.

언어교제론리에서는 글을 논리에 맞게 쓰자면 글의 체계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구체적인 문제점에 따라 논리를 어떻게 전개해나가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준다.

논리적인 글을 쓸 때 체계를 작성하는것은 논리를 세우는 첫 단계이다. 왜냐하면 글의 체계는 글에서 사상과 내용이 논리적연관을 가지고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글의 골격이기때문이다.

학위론문과 같이 규모가 큰 글은 말할것도 없고 소론문이나 학파토론문과 같은 짧은 글을 쓸 때에도 체계를 세우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야 글의 전반적구성이 빈틈없이 짜여지게 되고 내용을 펴나가는데서 논리적인 맞물림이 순조롭게 되며 비약과 중단, 되풀이를 피할수 있다. 언어교제론리에서는 체계작성의 본질과 논리적단계, 논리적인 글의 체계작성에서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하여 연구한다.

글의 체계를 세웠다고 하여 글의 논리를 세우는 작업이 끝나는것은 아니다. 일단 글의 전반적인 체계를 세운 다음에는 글의 매 부분에서 내용이 논리적으로 잘 맞물리도록

하여야 한다. 글의 매 부분들에서는 서로 다른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이야기된다. 때문에 글을 논리정연하게 쓰자면 매 부분들에서 논의하려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잘 분석해보고 그에 맞게 논리를 전개해나가야 한다.

논리적인 글들에서 반드시 제기되는 문제점은 본질과 특징, 원인과 결과, 정당성과 우월성, 필요성과 가능성, 과업과 방도 등이다. 언어교제론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해설론증할 때 논리를 어떻게 전개해나가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연구한다.

언어교제론리에서는 논리적인 글과 함께 논리적인 대화도 연구한다.

대화는 언어교제의 주요한 형태의 하나이므로 대화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끌고나가겠는가 하는것은 언어교제론리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물론 대화에서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잘하자면 화술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현방식에 관한 문제이다.

언어교제론리에서는 대화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하는것을 연구하는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를 제기하고 대화의 내용을 어떻게 꾸며나가겠는가 하는 문제에 기본관심을 돌린다.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언어교제론리에서는 대화를 연구함에 있어서 학과토론이나 학술적인 논쟁, 심의, 심문과 같이 형상적인 표현보다도 논리적인 전개가 기본방식으로 되는 대화들에 주되는 관심을 돌린다.

언어교제론리에서는 논리적인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구와 다양한 언어환경에서 대화를 논리적으로 끌고나가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수법들을 연구한다.

실례로 두 학생이 논쟁을 하는데 한 학생은 참대가 나무라고 하며 다른 학생은 참대가 풀이라고 주장하면서 각기 자기의 논거들을 제시한다. 비록 두 학생의 논제는 서로 모순되지만 논점은 《참대가 무엇인가?》라는 하나의 문제점에 귀착된다. 만일 한 학생은 참대가 풀이라고 하고 다른 학생은 참대는 더운 지방에서 자란다고 주장한다면 두 학생이 서로 다른 논점에 대하여 주장하는것으로서 논쟁이 옳게 진행될수 없다. 그러므로 논점의 일치를 보장하는것은 논리적인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구의 하나이다.

대화는 다양한 언어환경에 맞게 여러가지 수법으로 하여야 한다. 어떤 논쟁마당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수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효과적인 수법의 하나는 여러가지 질문으로 상대방을 모순되는 귀결에로 이끌어가는것이다. 이 경우 논박하는 사람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은 표현하지 않고 다만 문제점만 제기한 다음 상대가 그에 대답하는 과정에 스스로 자기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수법들도 언어교제론리의 연구대상에 속한다.

우리는 언어교제론리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소유함으로써 말을 해도 사리정연하게 하고 글을 써도 논리정연하게 써야 할것이다.